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신고

02-6320-0200



검찰 PROSECUTION SERVICE

## 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기자도 대상

###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 보도 의혹 수사...'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용 뉴스타파 대표 "유례없는 폭거, 악랄한 언론탄압"...2시간20분간 대치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

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 현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검찰은 2시간20분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립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 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장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 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묻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제 및 정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

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적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 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서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압수수색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송진영 기자

## 푸틴 "유엔제재 틀 내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뒤 자국 TV 채널 '로시아-1'(러시아-1)과 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도 승인한 안보리 대북제재를 염두에 둔 듯 "일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협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과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한 러시아가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



푸틴 대통령과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발사대 살펴보는 김정은 위원장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태평양함대 전력을 시찰하며, 교육 및 연구 기관도 방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김 위원

장은 이후 보스토치니에서 약 1천170km 떨어진 하바롭스크주 산업 도시 콤포스스나야무레를 방문하고, 뒤이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콤포스스나야무레의 '유리가가린' 전투기 생산 공장에서는 수호이(Su)-27, Su-30, Su-33 등 옛 소련제 전투기와 2000년대에 개발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35, 2020년 실전 배치된 첨단 5세대 다목적 전투기 Su-57 등을 생산한다. 민간 항공기도 제조된다. 이 지역에는 또 잠수함 등 군함 건조를

### 북러 정상회담 뒤 밝혀...논의중이며 협력 전망 있어

#### 김정은 방산업체·군기지 방문 끝나지 않았다며 결론은 보류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망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의 규정(안보리 대북제재) 틀 내에서(북러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마련된 일정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러 결과를 결산하기는 이르다"면서 "김 위원장이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에서 우주 및 군사·군수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북러 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및 군사 기술 거래에 합의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및 로켓,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지역에는 또 잠수함 등 군함 건조를

/ 조규돈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 Pay로 결제 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사인심의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KB국민카드

# 신원식, 12·12 옹호 논란에 “쿠데타 절대 있어선 안돼” 해명

## 文 비난 발언 논란엔 “인사청문회 중이나 직전에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릴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이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12·12 쿠데타를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저는 그(12·12)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고 보는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건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직전에 충분히 국민께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원기 기자



취재진에 둘러싸인 윤미향 의원

#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서 통일부에 제출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친북 단체 재일 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9명 모두가 통일부가 제시한 시한인 어제까지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서를 1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는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한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위서를 검토해야

이후 절차 진행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 조사를 벌여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약 이의 제기로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도 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이 사안을 다루게 된다.

/ 민성호 기자

# 유인촌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없도록 정리해볼 것”

## 자전거 타고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15년 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유인촌 후보자는 14일 “임명되던 그런 (블랙리스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임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장관 재임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예술계와)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 대립적으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태로) 밖에서 볼 때 문화부 공무원들 또는 지원기관에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거로 생각한다. 그들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또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긴 데 대해선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하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때가 15년 전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문화정책, 지원, 지역문화 균형 발전에서 일부는 변화했지만 크게 변화하진 않았다”며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해 국민의 문화복지, 예술가들 지원 정책을 이 정부에 맞게 새롭게 잘 다듬어보란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퇴임 이후 연극 무대로 복귀했던 후보자는 올해 7월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공직 복귀에 대해 “공직을 하는 동안 배우로서의 활동이 거의 중지됐다”며 “예전처럼 나서서 드라마나 영화에 출

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다. 현장을 떠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 현장을 좋게 만들어보려는 마지막 마음으로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지원 정책은 몇십 년 전부터 하던 일”이라며 “비슷하게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만큼 새롭게 바꾸고 고쳐보려 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문화부 현안에 대해 “문화 얘기를 하기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책적으로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자전거로 유럽 2천km를 종주한 유 후보자는 이날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

그는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성수동 집에서 출발해 40~45분 걸렸다. 아침 운동으로 딱 좋은 거리”라며 “중간에 자전거(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다. 청문회 기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 서종익 기자

# 정부 “日오염수, 내년 3월까지 3차례 더 방류 예정”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우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기반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 탱크’(방류 직전 탱크) 중 B, C, A 탱크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 탱크군과 A 탱크군에 오염수가 각각 780만리터(L)씩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1차 방류에서는 B 탱크군 오염수 776만3천L가 바다로 내보내졌다.

박 차장은 이어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 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차례 방류를 통해 삼중수소 총 5조 베크렐(Bq)이 해양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배출 한도인 22조Bq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전했다.

/ 박정민 기자

#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정부합동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대해 15일부터 사흘간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 소방청, 지자체단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대구 서문시장, 충남 보령시 중앙시장, 전남 목포시 청호시장, 여주시 수산시장 등 화재 발생이력이 있거나 시설이 노후한 전통시장 7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누전차단기 등 전

기시설과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계단 등 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석 전까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부터 전국 지자체도 관할 전통시장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15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시설도 위문한다.

/ 신영희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서행 KTX 투입·4조 2교대 전면 시행’...철도파업 쟁점은

## 노조 “철도 민영화 수순” vs 국토부 “검토한 바 없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에 들어간 14일 오전 서울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하차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4일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등 철도노조가 내세운 파업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필수 유지인력 9천여 명을 제외한 조합원 1만3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총파업에서 철도노조는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는데,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SRT 경부선 수서~부산 간 좌석을 하루 최대 4천920석(11.2%) 감축하면

서 예매 대란 등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대전은 평균 1천54석, 호남선도 월요일·토요일 좌석 410석이 줄어들었고, 국토부가 부산 좌석 할당을 늘리면서 울산·신경주·김천구미·대전지역 열차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철도노조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수서 노선을 축소하면서 또 다른 지역 갈등과 열차 대란을 유발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위한 사회적 분석 기구 구성·운영, 차별 없는 고속철도 운임체계 재구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조는 연속 이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형태인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사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

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 분명히 했다.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철도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사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임금 요구안을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경제성장률·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기본급 월 29만2천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소요 재원이 932억원에 달해 재무 여건을 고려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정책과 시민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가 설 곳은 시민이 계산 곳”이라며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과 동떨어진 국토부의 철도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김효준 기자



박정훈대령 측 “국방부장관 사퇴, 꼬리자르는 느낌”

##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장관 사퇴, 꼬리자르는 느낌”

채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두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에 도착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데 대해 “꼬리자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퇴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도 있고 향후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어 장관이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이 한 번도 국방부 장관을 두둔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 코멘트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두둔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사 개입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수사 개입”이라

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이 장관은) 장병에서 사단장까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서 (수사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경질설에 거리를 뒀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는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이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이다.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고발장 내용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발인인 김 단장과 유 관리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 오윤섭 기자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기존에도 유아 흡스쿨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사 키드 정세경 대표님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독러스 이마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독러스 유독

## ‘분당 흥기난동’ 최원종 첫 재판 공전...방청 유족 “분노 치밀어”

### 변호인 “수사기록 확인 못 해 의견 표명 보류”...다음 재판 내달 10일



법정 출석하는 ‘분당 흥기난동’ 피고인 최원종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흥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흥기 난동범’ 최원종(22)에 대한 첫 재판이 수사기록 확인 문제로 공전했다.

재판을 방청한 직후 유족들은 “핑계다. 시간 끌려는 전략이다. 분노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에 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1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검찰은 “지난 주에 늦게 신청해 허가했는데 아직 많아서”라고 말했다.

“증거기록을 보고 말하겠다는 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오며 잠시 소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확인 작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한 달여 뒤인 10월 10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끝냈다.

지난달 10일 검찰 송치 이후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은 연한 갈색 계열의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최원종은 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밝힐 때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이날 재판을 방청 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분노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다.

가족 부족을 받고 법정에 나온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지 않냐”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엄

중히 경고해 막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20대 딸을 잃은 아버지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범죄에 대해 인정할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최원종의) 변호인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 끌기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관심 갖고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고, 역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본 20대 여성 1명이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범행 전날인 8월 2일 오후 7시께는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흥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 곽도훈 기자

# 국방부 “북한-러시아 연합군사훈련 가능성 예의주시”

##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을 시사한 것을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북러가 동해상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북러 연합군사훈련이 시행될 경우 한미 또는 한미일 차원의 미사일 방어 훈련이 전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참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는 것이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유엔 결의 위반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러시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제규범이) 준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가 밀착하며 우리 정부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가 생기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전 대변인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확정하면 다음 행보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는 건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확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가 ‘한국이 원한다면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주겠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를 여전히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러시아와 외교를 이어가며 북한과 너무 급속도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백경준 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경실련 “입법실적·출석을 최하위는 국민의힘 김웅·김태호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김웅, 김태호 의원이 각각 제22대 국회의원 입법실적

과 본회의 출석을 최하위였다고 밝혔다. 경실련 이날 발표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조사 결과를 보면 임기일 대비 법률안 발의 건수는 김웅 의원이 연평균 3.0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 최재형(연평균 4.4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4.5건), 국민의힘 김태호(6.3건), 국민의힘 권은희(6.6건) 의원이 입법실적 하위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 전체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22.2건이었다.

본회의 출석률은 김태호 의원이 73.8%로 가장 낮았으며 국민의힘 정우택(74.6%), 국민의힘 정운천·무소속 황보승희(75.9%), 국민의힘 안철수(76.4%) 의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 출석률은

92.0%였다. 입법실적과 본회의 하위 10위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태호 의원이 유일했다.

의장·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들은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직책을 맡은 기간만큼 임기일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을 맡은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국회에서 한 의정활동을 계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해 어떤 분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지 밝히고 낙천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 양순철 기자

## 與 “민주, 뉴스타파 보도 前 ‘커피게이트’ 언급…대선공작 합작” 조수진 “안민석·이상호, 한 달 뒤 공개될 가짜 인터뷰 어떻게 알았는지 답해야”

국민의힘은 14일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배후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 이전부터 민주당 수뇌부에서 ‘윤석열 커피게이트’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대선 사흘 전인데 안민석 의원은 대선 한 달 전 YTN 방송에서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운운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 이상호 의원도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잔에 1천800억원 대출 비리를 덮었다”며 ‘커피 게이트’를 극대화했다”고 언급했다.

조 최고위원은 “안민석·이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뒤 공개될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어떻게 알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김기현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뒤 공개될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어떻게 알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된 뉴스타파 인터뷰는 화천대우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인터뷰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조수진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 심형호 기자

으로 쓴 초유의 ‘대선 공작’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주요 인사, 문제인 정부 검찰이 힘을 합쳐 만들어진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배후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 이전부터 민주당 수뇌부에서 ‘윤석열 커피게이트’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대선 사흘 전인데 안민석 의원은 대선 한 달 전 YTN 방송에서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운운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 이상호 의원도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잔에 1천800억원 대출 비리를 덮었다”며 ‘커피 게이트’를 극대화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한다. 비례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폼수 위성 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

## 소수 야당들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병립형 회귀는 퇴행” 민주 이탄희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연동형 비례 원칙 지켜야”



### 병립형 회귀는 촛불에 대한 배신 주당은 선거법 개악 중단하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야4당 대표와 의원단이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병립형 비례제 반대 및 선거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은 14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정치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준연

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개혁이 필요할 때 밀실에서 숨어 서로에게만 이익이 될 개악안을 내놓는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을 멈추고 대선 당시 촛불의 열망을 안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사표를 줄이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떼 겨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명백한 정치 퇴행이자 최악의 정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 황민욱 기자

## 민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하자 21대 국회서 반드시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이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

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서 이를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장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 정유진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D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We Do Technology SK hynix

#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1심 징역 6년

## 재판부 “대낮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해 공동체에 공포감...경중 올려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

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대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판결 직후 “애기가 없어졌는데...”라고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내비쳤다.

조군의 아버지는 이날 취재진에 “(나머지) 자녀들은 사고 이후 학교 통해 상담 치료를 받다가 그마저 너무 힘들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6년이 길긴 하지만, 저희 아이(조군)의 6년 뒤를 생각하면 할 일이 많은 나이”라며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이계(징역 6년)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선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

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혐의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3~30년이다. 다만 법원의 양형 기준은 가중 요소를 적용할 경우 징역 4~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A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실수로 아직 피지 못 한 어린 생명을 앗아 갔다”며 “조은결 군에게 앞뒤로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 부모님 등 유가족 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 송진영 기자



이준석, 대구대 찾아 초청 특강 진행

## ‘이준석 성접대 부인 못하게 해달라’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 기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희일 부장판사)는 14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을 못하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 이형민 기자

## ‘청탁 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공범’ 정책보좌관 징역 7년·경찰관 징역 4년 확정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 죄에서의 부정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9년 7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

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천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다만 수행비서 A씨의 상고는 받아들여 박씨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은 수행비서 업무에 드는 경비를 박씨로부터 사전·사후에 받은 것일 뿐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 박현욱 기자

## ‘가스라이팅’ 살인·중감금 폭행 30대 구속 기소

차량에 성인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남 여주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놀음집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이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돌려 내리치는 등 서로 폭행하게 했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 신지호 기자

## 김윤아 측 SNS 논란에 “정치적 입장 아냐 환경오염 우려한 것”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SNS 글 논란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다”고

소속사 엔터테인먼트는 이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

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윤아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RIP 지구(地球)’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올려 여론 정치인과 지지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윤아 측이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21일 만이다.

/ 박소희 기자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

# 가상의 대한민국을 만들다

LX공사는 국민 삶을 바꿀 디지털트윈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리비아 대홍수의 순간... "친구·이웃 죽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 사망자 2만명 넘을수도...실종자 가족들 애틋한 기다림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리비아 동북부 데르나의 참혹했던 순간을 전하는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겨우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가족과 이웃들을 잃은 주민들은 거센 물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슬픔을 토했다.

데르나 주민 루바 하렘 야신(여·24)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수 당시 가족 7명, 임신 중인 언니와 함께 사다리꼴 지붕 위에 올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작은 창고에 피해 있는 몇시간 동안 그는 거센 물살이 도시를 삼켜버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뒤에는 다른 생존자들의 도움을 받아 내려올 수 있었다. 집은 반 이상 물에 잠겨있었고 쓸려온 잔해로 엉망이었다. 모든 걸 남겨두고 물을 헤쳐 나왔다.

현재 데르나에서 200km가량 떨어진 도시 마르지의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야신은 "살려달라"는 이웃들의 외침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땀발로 걸어 나왔다. 주변



리비아 폭풍우 피해 지역 바라보는 주민

에 친구와 이웃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데르나에서 구호 활동에 참여 중인 이슬람 아주즈 역시 친척 수십명을 잃었다. 홍수 당시에는 다행히 데르나에 없었고, 돌아왔을 때 데르나는 더는 자신이 자랑 도시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휴양물과 진흙이 삼켜버린 도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실종자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리비아 당국은 현재 6천여명까지 치수

는 사망자가 2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추산한다.

아주즈는 바닷가에 가보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날만 시체 40구가 해안에 떠내려왔다고 전했다.

구호 활동 네트워크를 이끄는 파리스 알-타에는 "우리가 본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며 "바다에는 시신들이 있고 가족 전체가 떠밀려와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이 겹쳐 쌓여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홍수로 도시가 반으로 갈라지

는 바람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려면 100km를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데르나 홍수 당시 흩날리는 자동차들이 도로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급류에 휩쓸린 자동차들은 도로에 방치돼 있거나 물속에 처박혀 있다. 병원 밖에는 인도를 걷는 주민 옆으로 시체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시체를 덮은 담요를 들춰보며 가족을 찾는 이들도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리비아의 블로거 손도스 슈와이브는 자신 역시 당시 집에 있다가 물살에 떠밀려갔다고 적었다. 그는 "내 옆에도 위에도 밑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썼다.

얇은 물가까지 떠밀려온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살아남았다. 슈와이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해 가끔 신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가족이 실종됐다는 게 때때로 때때로...그들과 함께 죽었다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 최석준 기자



세바스토폴 러시아 군함에 미사일 공격

## "우크라, 서방무기로 크림반도 타격" 리, 레드라인 넘었나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요충지를 공격하면서 서방 무기인 스톱새도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이날 앞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조선소를 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2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대형 선박 한척과 잠수함 한척이 완전히 파괴돼 복구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크라이나 한 정보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공격에 쓰인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익명의 서방 및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에서 영국제 순항 미사일인 스톱새도가 쓰였다고 스카이뉴스에 밝혔다.

스톱 새도는 영국이 올해 초 지원한 공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250km에 달한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헤

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가 공격받았을 때 스톱 새도가 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는 스톱 새도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앞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쟁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서 순항 미사일 10기 중 7기는 공중 요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잠수함 1척이 완파된 것 외에도 군함 2척이 파손됐으나 수리를 거쳐 완전히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무인 보트 3척도 공격에 가세해 러시아 순찰선 한척을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격은 개전 이후 세바스토폴에 가해진 최대 규모 공격이라고 한 우크라이나 해군 은퇴 장성이 로이터에 말했다.

/ 남준현 기자

## 보란듯 밀착한 북러에 경고 나선 서방...우크라전 악영향 촉각

### 미국 "제재 부과 주저 안해"...영국, 북한에 무기협상 중단 촉구

북한과 러시아가 전세계가 쳐다보는 가운데 보란듯 '위협한 만남'을 강행,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자 서방 국가들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서방 대 북러간 대결전선이 첨예해지며 신냉전 양상도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은 양측 군사협력에 우려를 내비치는 한편, 모종의 무기 거래가 성사될 경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그 파장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합의든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분명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적절한 다룰 것"이라고 했다.



브리핑하는 커비 美 전략소통조정관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 군사 지원 가능성을 각각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며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또한 같은 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자기도 찬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과 협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뤄질 가능성이 큰 무기 이전이 매우 우려된다"며 "양쪽 모두 긴밀히 주시하면서 적절한 경우 제재 부과를 주

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영국은 이번 회담으로 러시아의 고립이 강조됐으며 북러 무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영국 총리실은 "우리는 북한에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멈추고 러시아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던 공개 약속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은 특히 이번 북러 회담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지원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소모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의 무기고를 북한이 다시 채워줄 경우 전쟁이 추가로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백만개의 포탄을 비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야포는 8천800여문, 다연장·방사포는 5천500여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수공장은 3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북한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사용했던 122mm 및 152mm 포탄을 제공할

/ 황유찬 기자

## 중국군 기관지, 간부들에 현장조사 촉구

### "반부패 운동 일환"

중국군 기관지가 인민해방군 간부들을 향해 일선 병사들의 애로를 직접 조사하고 혁신적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국내외 안보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투 대비태세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 속에 군에 대한 반부패 운동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 12일 군 지휘관과 고위 장교들은 일선 병사들의 일상적 문제들이 제때 해결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 각 부대의 지휘관과 공산당 지도자들은 현장 조사를 나가 병사들의 실생활 문제를 이해하고 혁신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간부들은 다른 이들이 모야온 정보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 풀뿌리 병사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방군보는 "중앙군사위원회 회원들이 세미나와 교류 활동을 통한 조사와 연구 수행을 주도해야 한다"며 "고위 간부들은 형식주의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조사와 연구 수행에서 겸손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단순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해방군 총 지휘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을 겸하고 있다. 해방군보의 논평은 대부분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의 일환이자 군의 전통을 재건하고 전투 대비태세를 개선하려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노

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로켓군의 사령관과 정치위원을 동시에 갈치우면서 로켓군 부부 경력이 없는 이들을 나란히 후임으로 앉혔다. 이 과정에서 로켓군의 전 지휘관 최소 3명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군 내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외부 인사를 수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외신은 약 10여명의 로켓군 전현직 수뇌부가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중국군 장비개발부는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조달 관련 부패와 범죄의 신고를 받는다는 통지를 발표했고,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사 부주석은 무기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에서 여러 입찰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움직임이라고 SCMP는 짚었다.

/ 강소현 기자

# 지금 사고 나눠내자!

##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월 6,900원

월 13,500원

월 900원

월 15,900원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소평 기준, 삼성TV(KU50UA7050F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이

#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47년만에 전체 밀그림...50층 이상 초고층

##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심의 통과...최대 300% 용적률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밀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만들어졌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존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의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하고 평면적인 제도 특성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 김현욱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중단하는 NH농협은행

## 금융당국, 은행권에 "장기대출 DSR 산정만기 개선하라"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을 야기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한 은행들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며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해 '가계 부채' 문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들여다 보는 등 전방위 감독에 나섰다.

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광도경 기자

## 트레일러도 자율주차?...현대모비스, 현지 특화기술로 북미 공략

### 북미연구소에 미시간주 부지사·GM 등 고객사 초청해 신기술 21종 선택

현대모비스가 트레일러 후방주행 보조 등 북미 시장에 특화된 기술을 내세워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북미 연구소에서 미시간주 부지사 갈린 길크리스트 2세와 GM,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고객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북미 시장 특화 기술을 시연으로 직접 소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트레

일러 후방주행 보조시스템이었다고 현대모비스는 전했다. 이 시스템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의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운전대를 자동으로 조작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트레일러의 자율 주차와 같은 기능이다.

북미 시장은 국내와 다르게 픽업트럭 수요가 높고, 트레일러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들이 후진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GV60에 이 기술을 장착해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현대모비스는 이 시스템 외에도 생체 신호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픽업트럭용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등 총 21종의 신기술을 행사에서 소개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가 개발 중인데 연구개발 현지화로 고객 맞춤형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 현지 특화 기술로 북미 공략 강화

북미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으로, 회사는 올해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만 총 22억8천만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올해 글로벌 수주 목표액이 53억6천만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큰 비중이다.

/ 윤성철 기자

## 삼양라운드스퀘어, '환갑' 삼양라면 뛰어넘는 식품 개발 나선다

### 맞춤형 식품 개발·식물성 단백질 사업 확대 등 방향 제시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라면 60주년 비전선포식 개최

지난 1963년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을 내놓은 삼양라운드스퀘어(옛 삼양식품그룹)가 과학과 문화를 융합해 더 좋은 식품을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14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삼양라면 출시 60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정우중 삼양애니 대표이사 등 그룹 경영진과 임직원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그룹의 명칭 변경을 선언하고 사업 비전을 제시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라는 새 명칭은 하늘과 땅, 사람을 풍족하게 만든다는 기업 철학 '삼양(三養)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음식을 의미하는 '라운드', 과학을 뜻하는 '스퀘어'를 더해 만든 것이다.

또 새 그룹명에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식품을 만들겠다는 그룹의 비전을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부문별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삼양스퀘어랩(옛 삼양중앙연구소)은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군집체) 연구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고, 삼양라운드힐(옛 삼양목장)은 소비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식물성 단백질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콩 연구를 강화해 대체육뿐 아니라 단백질 강화한 라면, 밥, 과자, 가정간편식(HMR) 등 다양한 식품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애니는 한국 음식의 매력을 디지털 콘텐츠와 e-커머스 등을 통해 확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밖에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삼양라운드힐에서 온실가스 고정 효과 등 탄소 저감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홍지민 기자

## "K-배터리 3사 글로벌 점유율 하락세...중국 업체 약진"

최근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R리서치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코리아 어드밴스드 배터리 컨퍼런스(KABC 2023)'을 열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과 전망을 공유했다.

SNER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합산 점유율은 2021년 30.4%에서 2022년 24.1%, 2023년 상반기 23.8%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CATL과 비야디(BYD)의 합산 점유율은 41.6%, 50.5%, 52.5%로 오르며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점유율은 2021년 35.4%, 2022년 30.0%, 올 상반기 28.7%로 하락세다. 같은 기간 중국 CATL 점유율은 13.9%, 22.5%, 27.2%로 오르며 LG에너지솔루션의 뒤를 바짝 뒤쫓았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21년 55.7%, 2022년 54.1%, 올 상반기 48.4%로 하락하며 50% 아래로 내려갔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중국 배터리도 덩달아 약진하고 있다고 SNER리서치는 설명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으며 LG에

/ 이형찬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퇴직금,  
불릴 줄  
아는 사람은

# NH투자증권 IRP

퇴직금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연금은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기입 전 상품설명서, (주)NH투자증권, 집합투자계약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소득세(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는 예금보유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사보유법에 따라 예금보유공시기간이 만료된 후 만 10년 이상 고령자의 다른 예금보유 대상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행하지 않으나, 모수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투자, 문화가 있다 (ETF/리츠 별 상세,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등 참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894호(2023.05.25~2024.05.24)

NH투자증권





# 이강인, AG 합류 시점 아직도 미정 황선홍 “확답 없어 답답”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남자 축구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의 대회 합류 시점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은 14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취재진을 만나 "PSG에서 공식적으로 이강인을 언제 보내겠다는 답이 없다"며 "강인이는 조속히 합류하고 싶어 하지만, 조율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성인 대표팀에서도 이미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이강인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축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다 이번 시즌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그는 최근 부상을 겪어 아시안게임 출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지난달 22일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쳤다는 소식이 구단을 통해 전해졌고, 유럽에서 열리는 9월 A매치 2연전(웨일스·사우디아라비아)에도 뛰지 못했다. 소속팀 경기에서도 결장이 이어진 가운데 12일 팀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 구단 영상을 통해 공개되며 복귀 기대감을 안겼다.

PSG는 애초 13일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출전과 관련한 입장을 대표팀에 전할 것

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PSG가 보내온 이메일에서는 이강인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 등이 담겼으나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시기에 대한 답은 없었다는 게 대한축구협회 설명이다.

"PSG에서 여러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가 될 수도 있고..."라고 전한 황 감독은 "협이가 잘 돼 조속히 합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이강인과 조별리그 1~2경기 정도는 맞추면 좋겠다. 토너먼트 이후 합류한다면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시점이 결정돼야 플랜D 짤 수 있을 텐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강인과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 "16일 경기(니스와의 리그 1 홈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만 들었다"며 "부상 회복은 어느 정도 된 듯한다. 컨디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E조에 속한 한국은 오는 19일 쿠웨이트, 21일 태국, 24일 바레인과 중국 저장성 진화스포츠펀터 스타디움에서 차례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 이민성 기자

## 배지환, 8경기 연속 안타에 시즌 23호 도루로 팀 승리 견인



4회 상대의 실책으로 2루 도루에 이어 3루에 도착한 배지환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는 배지환(24)이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배지환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해 3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 1도루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배지환의 시즌 타율은 0.244에서 0.245(294타수 72안타)로 소폭 올랐다.

1회 첫 타석부터 중전 안타로 출루한 배지환은 브라이언 레이놀즈와 키브라이언 페이스의 연속 안타로 홈을 밟아 선취 득점을 냈다. 2회에는 잘 맞는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삼켰던 배지환은 4회 세 번째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어 레이놀즈 타석에서 2루를 홈쳐 시즌 23호 도루에 성공했고, 상대 실책을 틈타 3루까지 진루한 뒤 레이놀즈의 홈런에 다시 홈에 돌아왔다.

배지환의 도루 시도에 워싱턴 포스트 드루 밀라스는 2루에 송구하려다 마운드에 있던 잭슨 러틀릿지의 뒤통수를 맞히고 말았다. 배지환은 6회 마지막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피츠버그는 워싱턴을 7-6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 최준용 기자

## SK 전희철 감독 “김선형·안영준 열심히 달릴 것…속공은 5개씩”

### ‘초보 사령탑’ 김주성 감독 “DB 부활이 숙제…3번째 삼성 싹겠다”

‘간발의 차’로 우승을 놓친 프로농구 서울 SK의 전희철 감독이 ‘매 경기 속공 5개’를 새 시즌 목표로 내걸었다.

전 감독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동행한 취재진과 만나 “경기 당 평균 5개 이상 속공을 통한 득점을 올리는 게 목표”라며 “(김)선형이와 (안)영준이가 열심히 달릴 것이다. (오)세근이에게도 뛰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시즌 우승과 준우승을 한 번씩 달성한 전 감독은 “정규 리그는 워낙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다. 그래도 4위 안에 들면 챔피언결정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1-2022시즌 우승한 SK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7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지만 아쉽게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올여름 2022-2023시즌 챔피언 안양 정관장(전 KGC인삼공사)에서 프로농구 최고 빅맨 오세근을 데려오는 데 성공한 SK는 새 시즌에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김선형이 견재한 데다 공수가 탄탄한 포워드 안영준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새 시즌 코트를 밟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부담스럽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1라운드 홈 경기 개막전을 치르고 10경기 연속으로 원정 경기다. 중간에 동아시아슈퍼리그(EASL)도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감독처럼 현역 시절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였다가 사령탑으로 변신한 김주성 감독도 팀을 이끌고 해외 전지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일본 고베, 가와사키 등에서 훈련하는 원주 DB의 김 감독은 지난 13일 현지 동행 취재진에 “팬들께 실망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전정”이라며 ‘초보 지도자’로 부족한



전희철 SK 감독

게 많지만 선수들을 믿고 개막전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선수 시절 16년간 DB에서만 뛴 김 감독은 2018년 은퇴 후 2019년 코치로 친정팀에 돌아왔다. 올해 1월 이상범 전 감독이 성적 부진과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한 뒤 대행으로 팀을 지휘했고, 지난 4월 정식 사령탑으로 임명됐다. DB는 2022-2023시즌 정규리그를 7위(22승 32패)로 마무리했다.

“DB의 부활이 숙제”라는 김 감독은 “어느 팀이나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며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수들과 함께 가겠다. 첫째는 봄 농구로 시작해 다시 정상에 도전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왜 감독님들께서 다들 피곤한 얼굴인지 이제 이해된다”며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책임지기에 감독이더라”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팀의 기동인 두 빅맨에게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강상재는 올해 MVP를 노려도 될 정도로 기량이 좋아졌고, 김종규는 이제 워만 바라볼 때만 됐다”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돌아오면 내가 직접 돕겠다”고 말했다.

/ 박정호 기자

## 원종범,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96kg급 합계 2위…메달 3개 수확

원종범(27·강원도청)이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3개를 수확했다. 원종범은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96kg급 경기에서 인상 172kg, 용상 212kg, 합계 384kg을 들었다.

인상에서 3위에 오른 원종범은 용상에서 2위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도 은메달을 따냈다. 합계에만 메달이 걸린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세계역도선수권에서는 인상, 용상, 합계를 모두 시상한다. 원종범은 은메달 2개(합계와 용상), 동메달 1개(인상)를 따냈다.

이번 대회 한국이 따낸 첫 합계 은메달이다. 합계 첫 메달은 여자 64kg급 3위에 오른 박민경(26·경북개발공사)이 수확했다.

29명이 출전한 남자 96kg급에서 카림 아보카흘라(26·이집트)는 인상 174kg, 용상 213kg, 합계 387kg을 들어 우승했다. 아보

카흘라는 인상에서는 2위를 했지만, 용상과 합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보카흘라와 원종범의 합계 기록 차는 3kg이었다. 카심 알-라미(23·이라크)가 합계 379kg(인상 175kg·용상 204kg)으로, 원종범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알-라미는 인상에서는 아보카흘라를 1kg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국제역도연맹은 “이라크가 올림픽 정식 종목인 스포츠의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이번 세계역도선수권 알-라미가 최초”라고 전했다.

원종범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102kg급에 출전해 11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에는 96kg급에 안착해, 진주 아시아선수권에서 합계 2위(382kg)에 오르더니, 개인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손에 넣었다.

/ 황순길 기자



# BIFF 엑터스 하우스에 윤여정·한효주·송중기 찾는다

## 한국계 미국인 배우 존 조까지 역대급 라인업 눈길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회는 영화제의 대표 이벤트 프로그램인 엑터스 하우스의 올해 라인업을 14일 공개했다.

2021년 신설된 BIFF 엑터스 하우스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들과 함께 그들의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며,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 프로그램이다.

올해 엑터스 하우스에는 배우 윤여정, 한효주, 송중기, 존 조가 찾는다.

영화 '미나리'(2020)로 제93회 미국아카데미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이 찾아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그녀만의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우 윤여정(왼쪽), 한효주

이어 '독전 2'로 돌아온 한효주, '화란'(2023)으로 2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송중기가 엑터스 하우스에서 관객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올해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초청된 한국계 미국인 배우이자 작가인 존 조 역시 부산 관객들과 만난다.

할리우드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배우 중 한 명인 그는 지난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성장소설 '문제야'를 출간하기도 했다.

엑터스 하우스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내달 5일 오후 7시 KNN 시어터에서 존 조를 시작으로 6일 오후 6시 송중기, 오후 8시 윤여정, 7일 오후 8시 30분 한효주 순으로 열린다.

엑터스 하우스는 누구나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9천원이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국제아동구조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된다.

/ 김경민 기자



## 블랙핑크, 美 MTV 어워즈 '올해의 그룹' 등 2관왕

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올해의 그룹' 등 2관왕을 기록했다. 12일(현지 시간) MTV VM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랙핑크가 '올해의 그룹', '베스트 안무'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수상하게 된 '올해의 그룹'은 2019년 신설된 분야로, K팝 그룹 등이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에서 제외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부문이 만들어진 이래 지난해까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년 연속 수상해왔으며 블랙핑크가 그 뒤를 이어 올해의 주인공이 됐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은 솔로곡 '세븐'으로 비온세, 빌리 아이리시, 두아 리파 등 경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송 오브 서머'의 주인공이 됐다.

정국은 지난해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이 부문 후보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수상까지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앞서 정국은 2021년 BTS 단체곡 '버터'로 이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정국과 블랙핑크는 이날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베스트 K팝' 수상자로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호명됐다. 정규 3집 타이틀곡 '특'으로 에스파, 세븐틴, 블랙핑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을 제치고 수상하게 된 스트레이 키즈는 "커리어를 시작한 이래 음악을 직접 만들어왔고 그래서 더욱 수상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며 "보여줄 것이 정말 많으니 스트레이 키즈의 미래를 기대해 달라"고 소감을 말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날 본 행사 전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 수여된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 부문을 받았다.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는 MTV가 매달 한 아티스트를 선정해 인터뷰 콘텐츠 등을 공개하는 'MTV 푸시' 캠페인에 선정됐던 아티스트 중 최고의 한 명을 선정하는 분야다.

/ 이은정 기자

## 남진 "활동 60년에도 신곡 내면 가슴 뛰어나...세계 누빈 BTS 대단"

### 신곡 '이별도 내 것' 등 발표...내달부터 전국투어

"가수는 '활동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곡을 받고 신곡을 내면 새로운 여인을 만나듯이 가슴이 설레고 뽀뽀합니다." '영원한 오빠' 남진은 13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신곡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활동 60주년'을 맞은 소감으로 "내게 딱 맞는 곡을 만나면 그날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다.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야만 행복하고 즐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는 '그분'(신을 지칭)만이 아시겠지만, 무대를 떠날 때까지 오빠라는 말과 환호 소리를 듣고 싶다"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남진은 1963년 한 음향 레스토랑 가수로 활동하며 처음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1964년 가요계에 정식 데뷔해 이후 '남과 함께', '동지', '빈 잔' 등의 히트곡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45년생으로 올해 78세인 그는 여전히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 무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남진은 "팬이 없는 연예인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나의 이 천직을 할 수 있게 해주게 팬들이다. 팬은 인연이자 운명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원조 오빠'다운 팬 사랑을 밝혔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기자회견장 한편에 자리 잡은 나이 지긋한 팬 다섯명이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60년간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그의 인기를 실감 나게 했다.

"예전에는 사실 노래가 천직이고 팬과 노래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것이 깊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워요. 노래가 내 인생의 무엇이라는 것을 느꼈죠."

남진은 "내게 노래는 소중하면서도 힘들다"며 "아니까 아는 만큼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만



름 행복과 보람이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남진은 지난 60년간 활동하며 히트곡만 수십 개지만, '전설' 혹은 '황제' 같은 거창한 수식어보다 '영원한 오빠'라고 불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 사회자가 '가왕'이니 '황제'라고 부르면 기분이 망가진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다만 가요계에서 '오빠 부대'가 처음 생겼다는 점에서 '오빠'라는 자부심과 기쁨은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면 꼭 '영원한 오빠'라고 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진이 요즘 관심을 두는 장르는 우리 전통 판소리다. 지금도 판소리를 들으면 감동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공연도 히트곡에 판소리 분위기를 섞어서 새로운 분위기로 준비하고 있다"며 "판소리를 한번 불러보고 싶는데, 판소리를 하면 목소리가 깨져서 가요를 부르지 못하게 되기에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느냐"며 "우리 (전통) 가요도 잘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바람을 전했다.

/ 손지영 기자



## BTS 뷔 '레이오버', 日 오리콘 주간 랭킹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가 일본 오리콘 주간 디지털 앨범 차트에 1위로 진입에 성공했다.

13일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난 8일 발매된 '레이오버'는 주간 다운로드 수 6천551건으로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에 1위로 진입했다.

이 앨범은 앞서 '데일리 앨범 랭킹'에서도 22만1천491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1위를 기록했으며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은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 정상에 올랐다.

뷔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에는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을 비롯해 '레이니 데이즈', '러브 미 어게인', '블루' 등 6곡이 담겼다.

/ 채진희 기자

##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자**

세액공제 / 담례품 제공

농축산물 공급

**농업인**

담례품 구입

농축산물 공급

**지자체**

함께하는 100년농협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어려웠던 엔(¥)테크, 내 편 하나가 생겼다

FX마켓으로 손쉽게 환테크하고,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면 끝



내 편 손님  
상담센터  
(☎1566-0034)



**FX마켓**  
원화, 외화 계좌 간 손쉬운 이체가 가능한  
모바일 개인 딜링 서비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해외주식에서 해외결제까지, 최대 10개국의  
통화 예치가 가능한 외화 다통화 입출금 통장

FX마켓 바로가기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바로가기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예금종류: 외화 입출금 통장-금리: 가입일 당시 홈페이지 고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USD 연 0.01%, 2023.08.11 기준, 세전)-이자: 평균잔액에 대하여 부리, 매년 3,6,9,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생략어 기준일의 익일에 원금에 가산 ※ FX마켓에서 산 외화를 외화현찰로 출금할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계좌의 안락,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1566-0034로 문의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5582호(2023.08.14) / CC브랜즈230811-0167

